

21세기 향해 정보통신 전문회사로 변신

지난 87년 7월 설립, 매킨토시 컴퓨터를 국내에 최초로 보급한 이래 전자출판 및 컴퓨터그래픽분야뿐만아니라 멀티미디어, 사무자동화, 교육용 등 전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정보화사회 건설에 앞장서 왔으며, 1995년 창립 8년만에 1,003억원의 매출, 전세계 13개의 유명기업들과 기술협력 체결, 100여개의 엘렉스센터등 유통망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과 수출에 전념해온 엘렉스 컴퓨터가 종합 정보통신 회사로 새롭게 태어난다.

'87년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이후 '95년말 자본금이 63억원으로, 3억원이던 매출액도 사업초기 연간 100%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8년만인 95년말 기준 1,003억원으로 333배 이상의 고도 성장을 지속,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어 왔다. 창립 9주년을 맞이하

면서 매킨토시 판매 뿐만아니라 멀티미디어 기술개발, 인터넷 클라이언트 서버 구축, 프린터 및 서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출 등 정보통신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종합컴퓨터, 정보통신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엘렉스컴퓨터 연혁

- 87. 7 엘렉스컴퓨터 창립(자본금 1억원)
- 88. 2 한글奎4.1(MAC사용 한글 OS) 발표 MAC 국내 판매개시
- 88. 8 미 Quark사와 한글화 및 독점공급 계약
- 89. 4 한미은행 유망 중소기업 선정
- 91. 3 조세의 날 산업포장 수상
- 애플퍼시픽 FY92 최고 디스트리뷰터로 선정
- 92. 4 대표이사 회장 이윤기 취임
- 92. 11 주식 장외등록 실시
- 미국 Claris사와 국내 독점 공급권 체결
- 92. 12 국내 전자출판 시장점유율 80%로 석권
- 93. 5 MAC용 한글 신서체 개발, 보급(한글 35종, 한자 22종)
- 93. 9 ACI사, 시민택사와 제품 한글화 및 공급권 체결
- 94. 1 국내최초 멀티미디어협회(EAMP) 창립
- 94. 2 제1회 한국컴퓨터디자인 대전 발표
- 94. 5 국내최초 64비트 파워맥intosh 3모델 발표
- 94. 8 엘렉스컴퓨터 사옥 준공(지상 15층, 지하4층)
- 94. 12 국내 멀티미디어 오쏘링 시장점유 1위
- 소비자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컴퓨터 1위 선정
- 95. 2 국내 최초 멀티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텔리젠틱을 개발
- 95. 3 매킨토시, PC 동시 지원 파워PC / 486 공급
- 95. 7 신 고객감동 선언
- 95. 12 매킨토시 맥아카데미 13개 대학 및 25개 실업계 고교 매킨토시 보급
- 96. 1 제3회 한국컴퓨터디자인 대전 발표 정보통신부 공식 후원
- 96. 2 소프트웨어 수출 6백만불 계약(한글 OS외)
- 96. 3 국내 최초 다국어지언 인터넷 SW개발

종합컴퓨터 · 정보통신업체로의 부상

국내 최초로 컴퓨터 운영체계인 한글OS 4.1의 발표 이후 한글OS에서 화상회의를 지원하는 쿼타임 컨퍼런싱, 가상현실 기술인 쿼타임 VR, 쿼드로우 3D, 컬러싱크 등 애플의 신기술을 채용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출했고, 100여개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멀티미디어를 선도하는 국내 80여기업들을 회원으로 한 EAMP를 설립, 지원하여 국내 최고의 통합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매킨토시 판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와 최첨단 연구 및 상품개발 시설

의 확충에 투자, 국내 최고의 전문 연구인력, 330평 규모의 연구개발 시설을 갖추고 오픈북, 코풀랜드 등 차세대 기술의 보급과 데스크탑 비디오, 포스트스크립트,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인트라넷, 칼스 등의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중견 사업으로 발돋움했다. 이러한 기술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95년에는 2백만불의 한글OS를 수출하였고, 96년도에는 4백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추가로 전자출판용 소프트웨어인 파워편집을 미국의 익스체인지사에 향후 3개년간 300만불에 이르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미래의 엘레스컴퓨터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수출,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선두 고수, 네트워크와 써버 등 시스템 통합,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등을 통하여 종합 정보통신분야의 첨병으로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유통망

공급자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고객과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엘레스인이 항상 여러분 가까이 있다. 기술력을 보유한 영업망은 전국 주요 도시 모든 곳에서 준비하고 있다. 본사에서 직영하는 171평 규모의 전시, 상담실과 전국 각지에 전시 판매장 그리고 대리점이 있다. 용산 전자랜드에는 국내 최대 120평 규모의 소프트웨어 전시매장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다.

연구개발시설

- 본사에 330평 규모의 연구개발실 및 상품 개발실 보유
-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휴업체: Claris, Quark, ACI, Symantec, Fractal Design, Specular, Insignia

한글 운영체제 개발

설립초기부터 많은 성과를 거두어 결과적으로 매킨토시 판매 캐시장에 결정적인 공헌을 해왔고 특히 한국적 환경에 맞게 새로이 기능을 개발하는 부분의 동사의 독자적 기술력으로 현재 호환 PC에 비해 7년정도 앞선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

한글 운영체계 및 전자출판용 수출

95년 2백만불 수출, 96년 4백만불 수출계약 등 총 47억원 규모의 한글 운영체계 수출, 매킨토시 보급 초기부터 운영체계를 한글화, 꾸준히 노하우를 축적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수출이 성사되어 해외교포나 한글 연구학자,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등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전자출판용 소프트웨어인 '파워편집'을 익스체인지(XChange)사에 수출, 4월부터 시판중이며 향후 3개년간 약 3백만불 규모가 수출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수출 준비중인 소프트웨어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소프트웨어 수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컨설팅

인터넷,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전자출판, 데이터베이스 부문으로 나뉘어 전문적인 솔루션 개발 및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매킨토시의 우수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기반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KBS영상 사업단과 제작물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매킨토시용 CD-ROM 타이틀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만화영화 전문 케이블 TV제작사인 오리온 카툰네트워크 지분 참여, 국내 최초로 애니메이션 영화 '아마게돈'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및 AS

용역사업에서는 소비자의 취향 및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과 하드웨어 기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컴퓨터 소요, 부속품 및 소모품 판매, 제품구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무상수리를 계속해서 받고자 할 경우에 이용하는 일종의 AS 보험제도인 엘레스케어 등이 있다.

개발자지원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어떤 사업보다 부가가치가 높다. 따라서 국내 매킨토시 소프트웨어의 개발기술 향상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꾸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기술자료의 한글화 공급, 개발장비의 지원, 개발된 우수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